

부활절 두번째 주일

THE WORSHIP SERVICE OF 2ND SUNDAY OF EASTER

주후 2024년 4월 7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31 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통일 46)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14 번 시편 24 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 (통일 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윤영록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요(John)20:19-31, 행(Acts)4:32-35	조문희 집사
찬 양 Anthem	“날마다”	찬양대
설 교 Sermon	“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 (Stop Doubting And Believe)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 믿음이 없이는 ”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 353)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파송 찬양 Sendig Hymn	546 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통일 399)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곳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전해주시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겼고,

현실의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넘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여전히 머뭇거리면서도,

진정 마음을 찢는 회개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더 이상 죄의 어두움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진리의 빛 가운데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일 2:15)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개역개정 요 20:27)

“Then he said to Thomas, "Put your finger here; see my hands. Reach out your hand and put it into my side. Stop doubting and believe.” (NIV John 20:27)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4/7 (주일)	4/8 (월)	4/9 (화)	4/10 (수)	4/11 (목)	4/12 (금)	4/13 (토)
레	레11,12	레13	레14	레15	레16	레17	레18
본문	시13,14	시15,16	시17	시18	시19	시20,21	시22
	잠26	잠27	잠28	잠29	잠30	잠31	전1
	살전5	살후1	살후2	살후3	딤펴전1	딤펴전2	딤펴전3

수/요/ 찬/양/집/회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찬양집회 (4/10수 오후7:30)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학13-9)
토요 새벽기도회(4/13토 오전6:30)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아” (시133:1-3)

지난 주일(3/31, 부활주일) 말씀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사 25:6-9, 막 16:1-8)

“부활(Resurrection)”은 분명 우리의 상식이나 이성을 초월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 터툴리안은 (심지어) “불합리하기에, 나는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도저히 말도 안되는 것을 무조건 믿으라”는 뜻이기 보다는, “믿으면 알게 되고, 믿으면 이해된다”는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6장(막16:1-8)에는 부활의 첫번째 증인이었던 세 명의 여인들(막 16:1-3)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 미리 기대했거나 믿었기에, 예수님의 시신이 장사되었던 무덤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빈 무덤에서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He has risen! He is not here)”(막16:6)는 말씀을 듣자, 이들은 “몹시 놀라고(astonished), 떨며(trembled),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afraid)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했다”(막16:8)고 본문은 전해줍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처럼) 몹시 놀라고(astonished), 몹시 떨며(trembled), 몹시 무서워(afraid)했던 사람들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참고, 고전15:4-8).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삶이 달라지고, 추구하는 삶의 방향도 달라졌던 것을 봅니다. 이러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도 달라지며, 우리의 모든 것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회퍼 목사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현재 우리 가운데 팽배해 있는 죽음의 이상화를 뿌리째 뒤흔든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